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박정희 유신시대에도 행정기관 이전과 수도분할 논의가 있었다. 3·1 민주국선 언 사건으로 투옥되어 복역 중이던 DJ가 이 소식을 듣고, 통합연서에서 깨달은 글씨로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이 옥중 서신(1977년 11월 29일자)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세상에 밝히는 것이다. 그의 수도 분은 폭넓은 독서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소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수도란 어느 나라의 경우나 지리적 중심이라는 이점이나 집권자의 권력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토 방위의 전방에서 싸우고, 뒷받치고, 되찾고 하는 피투성이의 투쟁 속에서 한 나라의 수도라는 영광과 국민의 총애를 받아 왔다. 그는 런던, 파리, 베를린, 페테르그라드, 델리, 베이징(北京) 등이 수도가 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들 도시는 한결같이 위험세력에 그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공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역대 수도는 고구려가 남천(南遷)한 것을 비롯, 백제와 고려의 수도가 모두 다 소극적 수호에 치중하고, 적극적 개척에 등한했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이 조선(朝鮮)의 수도로 정해지는 과정은 도참사상에 따른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고 말

한다. 그러나 불행한 분단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의 위치는 가장 올바른 수도의 자리라는 것이다. 한강의 북쪽, 휴전선에서 불과 25km의 거리에 있어, 거기서 정부와 국가의 지도적 인사들이 국가 방위에 끊임없이 긴장하며 숨 쉬고 있을 때,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믿음과 협력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밖에 안되고 말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는 세계수도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민족이나 국가가 개인이나 휘둘러지는 풍운의 역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 앞에 감연히 머리를 들어내고, 가슴을 펴고 그 도전을 받아들여 슬기로운 응전을 한 자만이 행운과 승리, 그리고 신의 축복을 얻어낼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신은 수도분할이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문제의 연원이 된 행정수도론은 처음부터 깊은 고뇌나 경륜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 나라가 맞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발전전략을 반영하여 나온 것도 아

니었다. 그렇다고 깊이 있는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친 것은 더욱 아니었다. 다만 2002년 대선과정에서 '재미를 좀 보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대선 공약의 하나였을 뿐이다. 재미를 좀 본 것만으로 끝냈더라면 좋을 일이었다. 또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을 때 일찌감치 접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중에서 멈추었더라면 이 나라 국민이 이렇게 분열되고, 이 공룡체가 저처럼 혼란스럽게 되지는 않았을 것을, 어찌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끌고나가 말뚝까지 박았더라 말인가. "법출 줄을 알면 위험하지 않다" 지지불태(知止不殆)라는 옛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밖에 안되고 말 것인가

사실상 수도분할을 전제로 하는 행정기능 중심 복합도시라는 긴 이름의 이른바, 세종시 원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왔다. 발상 자체가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사라져 버리는 여·야가 마탄가지였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던 사람은 자신의 이름표도 명품도시로 원안대로 건설하겠노라고 공약까지 했다. 어찌 반대했던 사람이 이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문제의 연원이 된 행정수도론은 처음부터 깊은 고뇌나 경륜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 나라가 맞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발전전략을 반영하여 나온 것도 아

이 얼마든지 있다. 굳이 밝히자면 나도 충청인이다. JP같은 이도 "엄격하게 국가차원에서만 볼 때는 그리 값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지 않던가.

총리후보 정운찬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나선 것은, 적어도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비로소 멈추어 서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가장 쉽고 편한 원안 대신 다른 길을 찾자는 목소리가 이제야 겨우 나오고 있다.

뒷날 '당신들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느냐'고 우리 시대가 추궁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왕 새로운 길을 찾았다면, 원안을 축소하거나 변형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표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모두가 다 이기는 길이다.

모처럼 확보된 2천200만 평에 한민족의 꿈을 그리자고 말하고 싶다. 서울대학교 정도의 이전이 아니라, 인류의 진보를 이끌고 세계를 경영해나갈 이재를 육성하는 글로벌 대학을 거기에 세우고, 두루 인간을 이롭게 할 홍익문명을 발전시킬 본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 억지 추향으로 짜맞추는 도시가 아니라, 세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한민족 시대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연론·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남 신규사업 반영률 겨우 16%라니

MB 정부의 호남 소외가 갈수록 그도를 더하고 있다. 각종 정부 인사에 이어 예산에서도 호남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려했던 4대 강 사업의 부작용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지원액 증감의 1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전남도가 19일 국감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지원액 증가율이 5.6%에 그쳐 올해 12.6%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특히 신규사업 국비 반영률은 겨우 16.7%에 지나지 않았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에 비해 무려 60%나 쪼그라들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 가운데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가 국토해양 분야라는 점이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올해 3천200억 원에서 내년 1천437억 원으로 삭감됐다. 특히 서

민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예산도 644억 원이나 깎였다. 미래 성장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주요 SOC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게 됐다.

올해 지자체의 국비지원 삭감은 예상했던 바다. 4대 강 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가용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도의 예산은 해도 너무했다.

우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MB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지역의 예산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후려쳐도 되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국민통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도 내년도 예산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무얼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지역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기로 없어 교실 냉난방 가동 못해서야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설치한 최신형 냉·난방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막대한 예산 투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05곳을 비롯해 중학교 61곳, 고등학교 47곳, 특수학교 4곳 등 모두 217곳에 사업비 651억원을 들여 현대식 냉정형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이미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65곳을 포함하면 광주지역 282개 모든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냉·난방 시설 완비로 '찜통·동태 교실'이 사라질 것이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는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 일선 학교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 가동을 극히 제한한 데다, 겨울철 난방기 가동 때도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액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냉·난방기 가동시에는 학교 당 매 달 50~80만원의 전기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경우 교수학습지원비 등 타 항목으로 책정된 운영비를 줄여야 돼 여여간 가동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11.4% 인상한 한국전력이 적자발생 이유로 추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의 계획대로 대규모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내년 여름부터는 최신형 에어컨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도 한전은 직원들에게 8천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 원가절감 노력은 뒷전인 채 요금만 올린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리 만무하다. 교육당국도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無等鼓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BC 259~BC 210)은 권력이 막강해질수록 영생을 꿈꾸었다. 진시황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영화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 불로장생을 염원했다.

그는 온갖 금리 끝에 서복이라는 신하에게 500명의 동남동녀를 동원해 불로초를 구해 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지금의 친황다오(秦皇島)에서 출발한 서복 등은 풍량을 만나 고초를 겪은 끝에 제다가 돌아갔다는 설이득 전해 온다.

영원한 삶을 갈구했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서복 등이 산삼을 불로초로 여기고 진시황에게 가져다 바쳤다는 설을 전한다.

서복은 산삼만 가져왔던 게 아닌 모양이다. 제주에 표류했던 서복 일행은 전북의 진가를 전해듣고 이를 가져다가 진시황에게 진상했다는 것이다. 진시황과 관련된 이야기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전북이 '조개류의 황제' 대우를 받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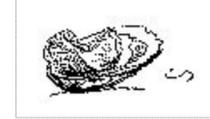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즈음 함량이 많은 전복 살은 한방에서 고혈압 치료제 쓰인다. 껍질은 백내장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고가의 식재료로서 약용으로까지 전복의 쓰임새는 매우 다양하다.

전북 가운데서도 한국산의 명성은 불로초를 구해 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지금의 친황다오(秦皇島)에서 출발한 서복 등은 풍량을 만나 고초를 겪은 끝에 제다가 돌아갔다는 설이득 전해 온다.

영원한 삶을 갈구했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서복 등이 산삼을 불로초로 여기고 진시황에게 가져다 바쳤다는 설을 전한다.

서복은 산삼만 가져왔던 게 아닌 모양이다. 제주에 표류했던 서복 일행은 전북의 진가를 전해듣고 이를 가져다가 진시황에게 진상했다는 것이다. 진시황과 관련된 이야기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전북이 '조개류의 황제' 대우를 받는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즈음 함량이 많은 전복 살은 한방에서 고혈압 치료제 쓰인다. 껍질은 백내장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고가의 식재료로서 약용으로까지 전복의 쓰임새는 매우 다양하다.



전복

전북 가운데서도 한국산의 명성은 불로초를 구해 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지금의 친황다오(秦皇島)에서 출발한 서복 등은 풍량을 만나 고초를 겪은 끝에 제다가 돌아갔다는 설이득 전해 온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자선정·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 처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0-0195)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유태명



광주 가을을 추억으로 수놓은 '제6회 총장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호남의 일민지도, 광주의 종갓집인 동구 총장로와 금남로 등 구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시간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그 이러한 여운은 오랫동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쉼 걸립니다. 시민 여러분, 총장축제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날 총장로와 금남로에서 꽃피었던 시민들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은 광주를 세계 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양분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의 향연이 총장축제와 성공리에 마무리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금남로 일대 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으셨던 시민 여러분,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각종 경

연에 참여하여 주신 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신 경찰관계자 여러분을 비롯 고마운 말씀들 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총장축제 성원 감사합니다

축제 기획 단계부터 기간 동안 보내주신 격려는 저를 포함한 동구 구민과 관계자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지직한 노점상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축제가 올해부터 '국가 지정 축제'로 승격되어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기초단체가 주최하는 축제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적인 문화예술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엔 시민 여러분과 동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컸습니다.

소중한 시민 여러분의 단합된 역량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광주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동구의 명예를 빛내는 희망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광주의 구도심인 총장로와 금남로 일대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각하고 상권은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장축제와 같은 대규모 거리축제를 통해 제2의 번영시기가 앞당겨

수천명 이용하는 할인마트

카드기 손잡이 소독했으면

마트에 쇼핑러 가면 매장에 비치돼있는 큰 쇼핑카트를 이용하게 된다. 쇼핑카트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이용하며 끌고 다니는 대표적인 공용 물건인데 과연 이 손잡이 부분이 제대로 소독이 됐는지 궁금하며 한편으로는 겁도 없다.

그런 터에 얼마 전 보도를 들으니 공공시설물 중 할인마트의 카드 손잡이가 일반세균에 가장 많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하철 손잡이나 PC방의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손 닿는 부분에서는 상처를 통해 감염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하물며 요즘처럼 신종플루 때문에 온 나라가 비상인데 마트측에서는 카드 손잡이에 대해 언제 어떻게 소독과 정결 활동을 하는지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PC방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거야 물세척이 어렵겠지만 카드 손잡이 부분이나 지하철, 버스 손잡이 부분은 때서 소독 후 다시 불일 수 있는 것으로 고쳐 달거나 앞으로 그렇게 제작해 적절히 소독을 해주면서 사용토록 조치해 줄 수는 없을가 생각해본다.

▲이금숙·광주시 서구 농성2동

NGO 칼럼

장원섭



80년대 이후 5·18은 민주주의의 추진력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살아남은 자의 도리와 역할, 양심과 의리, 집이라는 말도 5·18을 기점으로 대중적인 사회적 용어가 되었다.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

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모습에 보고 5·18을 이제 버리자고 하는 주장은 어떤 정당성이나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박정희 유신독재가 이순신을 영웅화해서 나름 정권을 위해 이용해 먹었다고 해서 이순신의 역사적 가치와 유산을 버리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순신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유산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역사적 사실과 유산은 결코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은 언제나 역사의 반동세력들뿐이라는 사실을 한번쯤은 되새겨 볼 일이다.

옛 도청 철거와 보존을 둘러싼 지난 1년 이상의 대립은 단순히 낡은 콘크리트 건물 하나를 철거하느냐,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5·18 정신을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돈과 무한 경쟁, 속도와 효율로 요약되는 흐름에 굴복할 것인지 하는 문제였다. 항쟁의 최후 격전지이자

항쟁을 완성한 상징이 옛 도청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인 옛 도청 보존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사색과 토론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철거론자들은 시기상실과 지나간 철차, 공기지원과 추가예산 등을 이유로 철거의 합리화를 주장하였다. 요컨대 보존됐으면 좋았겠으나 현재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속도와 돈보다 귀중한 가치가 훨씬 많은 법이다. 인류가 오랜 기간 발전시켜온 가치는 결코 돈과 경쟁의 효율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이다. 사랑과 의리, 평등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보존과 계승 등이 그러하다. 또 잘못된 일은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자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며 이런 말은 정시에 출발하는 가차를 놓쳤을 때나 필요한 말이다. 흑어 이미 도청 건물이 철거된 후 다시 복원하자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철거론자들의 주장도 나름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다.

이제 일단락된 옛 전남도청 문제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바로 보는 양심과 용기가 필요한 때다. 모두가 이번 일을 광주 지역사회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한다. 그러나 전화위복도 뼈를 깎는 노력 없이 그냥 되지 않는 법이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 불편한 진실을 바로 보는 데로부터 시작하자.

〈옛 전남도청보존 시도민대체위 상황실장〉

옛 전남도청에 대한 불편한 진실

의 과제를 남겨 두었다. 5·18은 그 자체로 역사의 정방향을 위한 제적이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5·18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듯하다. 이는 소위 옛 전남도청 철거와 보존의 대립점에서 극단을 보여 주었다. 각종 상황논리와 절차를 내세워 도청 철거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각종 착시현상이 난무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5·18이 광주에서도 이런 취급을 당하는 판에 '전국화요, 세계화요' 하는 구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주객전도(主客顛倒)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라, 5·18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